

‘게임체인저’ 이호재, 6분만에 ‘극장골’

포항, 대구에 3-2 개막전 역전승...김기동 감독, 이호재 교체카드 적중



포항 이호재(앞)가 2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대구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개막전 후반 45분 역전 결승골을 뽑은 뒤 기뻐하고 있다. 후반 32분 제카 대신 투입된 그는 39분과 45분 잇달아 골을 터트리며 팀의 '호재'로 작용했다. 이기형 성남 감독의 아들이 아닌 '축구선수 이호재'로서 멋진 한 시즌의 출발을 알린 활약상이다.

포항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후반 38분까지 1-2 패색 짙었지만
교체투입된 이호재 동점골·결승골
성남 이기형 감독의 아들 '부전자전'



‘쇼타임 6분’이면 충분했다. 프로 3년 차인 포항 스틸러스 이호재(23)가 힘차게 포효하자 포항스틸야드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스코어 3-2, 포항이 2023시즌 K리그1(1부) 개막전에서 활짝 웃었다.

포항은 26일 안방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개막전에서 대구FC를 3-2로 꺾었다. 후반 38분까지도 1-2로 뒤져 패색이 짙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바꿨다.

교체 자원인 이호재가 춤을 췄다. 후반 39분 김승대의 어시스트를 받아 오른발 슛으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45분 김종우의 절묘한 패스를 오른발 역전 결승골로 연결했다.

후반 32분 이호재가 대구에서 데려온 브라질 공격수 제카 대신 투입되자 장내 아나운서는 “우리에게 ‘호재’만 있다”고 외쳤다. 그 기대가 딱 맞아떨어졌다. 시즌 전체 레이스를 가늠할 중요한 첫 판에서 큰일을 냈다.

상황은 좋지 않았다. 포항은 전반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먼저 실점했다. 대구 세징야의 오른쪽 코너킥을 홍정운이 머리로 흘려줬고, 이를 고재현이 재차 헤더로 받아 넣었다. 포항은 전반 45분 측면을 파괴한 제카의 패스에 이은 정재희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후반 19분 세징야에게 페널티킥(PK)으로 추가 실점했다.

키오프 전까지 포항의 ‘기대 1순위’, 대구의 ‘경계 1순위’는 제카였다. 최원권 대구 감독은 “김기동(포항) 감독님이 제카가 많이 훈련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속지 않는다. 컨디션이 안 좋았으면 한다”는 농담 섞인 진담을 건넸고, 김 감독은 “공격 연계도 해주고 수비도 적극적인 선수”라고 기대했는데 진짜 주인공은 제카와 역할을 바꾼 이호재였다.

사실 이호재는 본인보다 한국축구의 한 시절을 풍

미한 이기형 성남FC 감독(49)의 아들로 더 유명하다. 부친의 명성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다. 프로 첫 해인 2021시즌 15경기에서 2골을 넣은 그는 지난 시즌 16경기에 출전했다. 지난해 10월 홈에서 벌어진 울산 현대와 ‘동해안 дер비’에서 상대의 우승을 저지하는 1골을 터트렸으나 만족할 수 없었다.

올해는 더 올라야 한다. 더욱이 22세 이하(U-22) 의무출전 규정을 졸업해 출전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진정한 홀로서기가 필요하다. 몸만들기부터 정성을 쏟았다. 키 191cm의 등직한 체격에 힘과 스피드를 가미하기 위해 몸무게를 3kg 감량했다.

마음가짐도 달랐다. 1월 베트남 동계훈련 도중 발목을 다쳐 작은 뺨조각 6개가 돌아다니는 상태가 됐음에도 운동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호재가 “치료와 훈련을 병행했고, 뛰는 데 문제없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땀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의지를 보이자, 김 감독도 “한 걸음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포항 | 남정형 기자 yoshike3@donga.com



MBN '불타는 트롯맨'과 넷플릭스 예능 콘텐츠 '피지컬: 100'에 각각 출연한 가수 황영웅과 스타트배우 김다영(왼쪽부터)이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제공 | MBN·김다영 SNS 캡처

‘황영웅’에서 ‘김다영’까지
방송가 폭력 논란에 몸살

‘불타는트롯맨’ 우승후보 황영웅 술자리 폭행 사과
‘피지컬:100’ 김다영도 과거 학폭 의혹 일부 인정
국가대표 출신 A씨, 데이트 폭력 현장 흥기 발견

방송가가 출연자들을 둘러싼 각종 폭력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넷플릭스 예능 콘텐츠 ‘피지컬: 100’,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등의 주요 출연자들이 학교폭력(학폭) 및 데이트 폭력 현장 등에 줄줄이 휩싸여 각 제작진이 수습에 나섰다.

●논란의 출연자들

‘피지컬: 100’의 출연자인 스타트배우 김다영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학폭 주동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14년 전 소위 노는 학생이었고, 후배들 기강을 잡는답시고 욕설과 상처 되는 말을 했다”며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금품을 빼앗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국가대표 출신의 남성 출연자 A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50분경 청담동 인근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A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흥기를 발견해 이를 조사 중이다.

‘불타는 트롯맨’은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가수 황영웅이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황영웅은 과거 술자리에서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폭로가 나오자 25일 제작진을 통해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어른이 돼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다”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출연자 논란, 공정성 이슈로 확대

제작진이 문제의 출연자를 편집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란은 각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피지컬: 100’은 김다영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그의 분량을 편집하지 않고 새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다만 출연자 A의 폭행 혐의까지 불거지자 28일 열려던 기자간담회를 급히 취소했다. 이 기자간담회에는 장호기PD와 우승자인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후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최종 결승전이 반복 촬영했다는 루머가 퍼지자 제작진은 “종료된 경기 결과를 반복하는 재경기나 진행 상황을 백지화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황영웅도 24일 네이버 나무에서 진행된 스페셜 쇼에 편집 없이 등장했다. 이에 황영웅으로 우승자가 내정된 것 아니냐 의혹까지 나오자 제작진은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가장 결정적인 시스템상 제작진은 그 어떤 개입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도 황영웅의 하자 및 이후 분량 편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J 웰케어

전립선 건강은 기본!
비오틴까지
풍성하게!
전립소 쏘팔메토 블랙



전립소 전속모델 이정용

●저온 초임계 추출 프리미엄 쏘팔메토

·미국 플로리다산 고품질 쏘팔메토 100% 사용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저온 초임계 추출방식으로
잔류물질 걱정 없이 안심

●비오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배의 풍성한 고품량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프랑스 DSM사의 프리미엄 비오틴 300ug 함유
·비오틴 1일 섭취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의 풍성한 고품량

●남자를 위한 7종 기능성 원료

- ① 전립선 건강을 위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 ②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오틴
- ③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를 위한 비타민 B1
- ④ 체내 에너지 생성을 위한 비타민 B2
- ⑤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 B6
- ⑥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2
- ⑦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나의 건강, 평생포워드 리턴업
Returnup

4개월분 구매 시
2개월분 추가 증정

건강기능식품전매조합·(주)노바비스 2공장·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원·씨케이웰케어(주)

CJ웰케어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